

현대철학의 흐름 짚은 소개서 활발

알기 쉽고 일목요연한 총괄서 늘어

까다로운 번역과 어느 한 저자에 편중된 출간으로 전체를 조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대철학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이 책들은 현대철학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현대철학의 주요저작을 읽기 위한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데서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번역서 일변도에서 벗어난 국내학자들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우리 학계가 서양 현대철학을 소화하고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선보인 현대철학의 소개서로는 《현대철학의 흐름》(동녘), 《현대철학산책》(백산서당), 《103인의 현대사상》(민음사) 등이 대표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철학을 개괄한 일련의 책들이 나와 있다.

“서양현대철학은 근대까지의 철학사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서양현대철학의 여러 흐름을 초보자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경희대 철학강사 박정호 씨는 말한다.

형이상학극복이 현대철학의 핵심

젊은 국내 서양철학 전공자들이 엮어낸 《현대철학의 흐름》(박정호 외 엮음, 동녘)은 난해하기로 소문난 현대철학을 현상학과 해석학, 비판이론,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분석철학의 네가지 주요 사조로 나눠 간추렸다.

현상학과 해석학에서 후설·하이데거·메를로-퐁티·리코르의 이론을 좀더 쉽게 설명했고, 비판이론은 루카치·아도르노·하버마스의 사상을 통해 정통적인 사회주의가 실패하거나 배반당한 후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자 모색했던 노력을 보여주었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부분은 레비-스트로스·라캉·푸코·알튀세·데리다의 철학을 설명하며, 철학의 오랜 주제였던 주체·역사성·보편구조·이성·진리를 공격, 성찰하고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찾는다. 분석철학은 비트겐슈타인·반과인·포퍼·로티 등으로 묶었다.

《현대철학산책》(황원곤 엮음, 백산서당)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입문하기도 전에 질



전체적인 조망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대 철학의 흐름을 짚은 소개서가 활발하다.

리는 경향이 있는 현대철학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일본 寶島新書에서 펴낸 《현대사상입문》을 번역한 이 책은 모더니즘이 형이상학 극복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니체에서 시작된 형이상학 비판의 흐름은 형이상학이 구축해온 인간의 이념과 언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헤겔 이후 현대철학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포스트구조주의가 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설명하며 현상학과 실존주의·기호론·구조주의·포스트구조주의 등 각 흐름의 중심적인 문제의식과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논지를 소개했으며 주요 용어나 철학자에 대해 키워드식으로 정리, 대표와 사진을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해체와 주체, 인간을 통해 본 현대철학

서양철학은 신학의 연장선이자 그것의 극복을 위한 철학이라고 한다. 신의 대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물질과 인식, 헤겔의 정신의 자기발전, 알튀세의 주체 등이 주장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해체’ 역시 신학극복의 모더니즘으로 볼 수 있다. 해체의 힘은 건물 바깥에서 가해지는 것보다 구조물 자체의 역학으로부터 나온다는

논리가 철학에도 해당된다.

오래도록 ‘체계의 건축술’로 이해되어 왔던 철학이라는 구조물의 해체공법에 해당하는 철학사의 방법론이 데리다의 해체론이다. 《해체론 시대의 철학》(김상환 지음, 문학과지성사)은 니체에서 데리다에 이르는 해체론을 서양존재론 역사의 반복과 갱생의 문맥 안에서 읽고 있다.

저자는 철학사의 모든 철학적 이동은 이미 해체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해체론은 로고스에 얽매인 형이상학적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나르시시즘에 취한 이성의 거울을 깨뜨려 다른 형태로 철학의 시작을 촉구한다고 한다.

민음사 30주년 기념도서인 《103인의 현대사상》(김우창 외 엮음, 민음사)은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이라는 부제로 주요 사상가들의 이론을 다이제스트하여 현대철학을 집약했다. 단순히 지성사적 차원의 되돌아보기가 아니라 향후 진로를 예측하는 단서가 될 이 책은 각 분야 전공국내학자들에 의해 엮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체는 죽었는가》(강영안 지음, 문예출판사)는 현대철학의 주요쟁점인 ‘주체’의 문제를 통해 철학사를 조명한다. 전통적인 주체개념 비판을 통해 자연과 타인들, 그리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개념을 모색한 책이다.

레비나스나 라캉, 플라니 같은 우리에게

전체를 조망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대철학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이들 책은 현대철학의

주요 저작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 역할과, 우리 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비교적 낯선 철학자들을 데카르트·하이데거·니체·셀링 등과 함께 소개, 주체 개념과 텍스트 해석에 주력하고 있다.

철학사조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로저 트리그 지음, 자작나무)도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에 관한 물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물음이라는 점에서 출발, 인간본성의 문제를 사회적·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사상이 10인의 주장을 주제에 맞추어 비교적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한가지의 주제를 정해 철학사를 살피는 것은 재미있는 접근방법이다. 계속해서 철학시리즈의 일환으로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을 곧 출간한다”고 자작나무의 편집장 김미숙씨는 밝힌다.

서양현대철학에 대한 이론서와 이야기집 출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철학은 모더니즘 비판의 계열이자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산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마르크시즘의 시대를 극복하고 혹은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단계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70년대에 모더니즘의 극치인 마르크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위시한 현대철학이 뒤섞여서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황원곤(강원대 철학 강사)씨의 말처럼, 현대철학에 투영된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천착하고 새로운 지평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마정미 기자